팔고의 원인은 많은 욕심
〈八苦〉



新 불교사자성어

㉚ 발고여락(拔苦與樂)

'발고여락(拔苦與樂)' 은 고통, 괴로움을 제거해(拔苦) 즐거움을 준다(與樂)는 뜻이다. 불교에서는 고통, 괴로움을 크게 여덟 가지로 구분, 정리한다. 그것을 흔히 '사고팔고(四苦八苦)' 라고 하는데, '사고' 는 생로병사 네 가지이고, '팔고' 는 '사고' 에 애별리고, 원증회고, 구부득고, 오음성고를 추가해서 '팔고' 라고 한다.

팔고는 '인생 팔고' 혹은 '인생의 팔대 고통' 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여덟 가지 고통은 태어남과 동시에 시작된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이어진다. 그러니 고통에 익숙해지는 방법 밖에 없다. 고통에 익숙해져서 시시한 고통은 고통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다.

한 인생이 태어나는 것은 축복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생존이 시작된다. 이렇게 시작된 생(生)은 40세에서 50세 정도까지 이어진다. 그 다음부터는 노(老)가 시작된다. 늙어가는 모습은 대체로 추하다. 30대까지는 아름답지만, 고상하게 늙는 사람이 드물다. 또 갖가지 병이 생기기 시작한다. 결국은 갖가지 병으로 고통을 겪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다.

요즘은 60세 이후의 늙는 과정이 너무 길다. 중풍, 치매, 암 등 대부분 갖가지 질병으로 10년에서 20년 동안 고통을 겪다가 죽게 되는데, 이것을 보면 때론 슬프기도 하고 한숨이 나오기도 한다. 어떻게 하면 저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한다. 생로병사 사고 외에 네 가지 고통이 더 있다. 이 네 가지는 정신적인 고통이라고 할 수 있다.

애별리고(愛別離苦)는 부모와 자식, 형제, 이성 등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을 말한다. 부모와 자식, 형제 사이는 특별히 죽음이 오기 전에는 헤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 떨어져 사는 것 정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이성 간의 이별이나 헤어짐은 많고 괴로움도 크다. 요즘은 쿨하게 잘도 헤어지지만, 예전에는 심각했다. 둘이서는 매우 좋아했는데, 어떤 일로 인해 부득이 헤어져야 할 경우 때로는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다. 요즘은 부모의 반대도 말뿐이고, 설사 반대가 있다 해도 의사 표시 정도에서 끝나지만 과거에는 부모의 반대도 심했고, 또 부모가 반대하면 결혼하기가 쉽지 않았다. 효도와 사랑 사이의 딜레마는 무어라 표현할 수가 없어서 더러는 죽음을 택하기도 한다. '사(死)의 찬미' 를 부른 윤심덕의 비극적인 동반 자살 사건이 그런 경우이다. 그 밖에도 저런 환경적인 요인으로 자의와는 달리 헤어지게 되는 일이 많았다.

원증회고(怨憎會苦)는 싫어하는 사람, 보기 싫은 사람과 만나야 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이다. 이것은 주로 직장에서 많이 겪는 일인데, 상사나 사장이 보기 싫다고 사표를 낼 수도 없고, 보기 싫지만 하는 수 없이 보아야 한다. 매일 같이 만나게 되는 것이 직장 상사나 동료인데, 보기 싫은 것, 이것이 원증회고이다.

구부득고(求不得苦)는 갖고 싶은 물건을 마음대로 갖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이다. 샤넬 가방이나 루이비통, 구찌 등 명품 가방을 갖고 싶은데, 경제력이 부족해서 살 수 없을 때 비애를 겪는다. 특히 옆집 사람은 갖고 있는데 나의 현실은 그럴 수 없을 때 비애를 느끼게 된다고 한다.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상대적인 비애라고 할 수 있다.

오음성고(五陰盛苦)의 오음은 색수상행식 오온을 가리킨다. 오온을 정리하면 곧 육체와 정신이다. 즉 정신적, 육체적으로 욕망이 매우 많은 데서 오는 괴로움이다. 고가품이나 명품에 대한 욕구, 이성에 대한 욕구 등 욕구와 욕망 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데서 겪는 괴로움이다.

이 여덟 가지 고통, 괴로움은 사람에 따라서, 또는 관심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누구나 느끼는 감정이다. 적절하게 욕망을 통제하는 것이 현실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혜일 것이다. 인간 세상의 모든 고통은 대부분 이 여덟 가지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팔고(八苦)가 생기는 원인은 '욕심(慾心)' , '욕망' 이 많기 때문이다. 현명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어리석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발고여락은 〈대지도론〉에 있는 사자성어다. 불보살님이 '중생들의 괴로움을 뽑아 없애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 이 발고여락인데, 자비가 곧 발고여락(拔苦與樂)이다. 자(慈)는 '즐거움을 준다(慈能與樂)' 는 뜻이고, 비(悲)는 '괴로움을 없애준다(悲能拔苦)' 는 뜻이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손바닥 펴고 쥐는 것, 옳은것은?



격절록 강설

㉚ 제11칙 흠산수권(欽山竪拳)

[古則과 着語]

擧, 欽山一日上堂 竪起拳頭. 又開云 "開即為掌 五指參差" (打入葛藤窟窟去也) 復握拳云 "如今為拳 必無高下 (也是靈龜曳尾) 還有商量也無" (合取狗口) 一僧出眾竪起拳頭 (弄泥團漢 有甚麼限) 山云 "你只是箇無開合漢" (也好與三十棒)

흠산(欽山, 흠산문수)이 하루는 상당(上堂)에서 주먹을 세웠다. (그리고는 주먹을) 다시 펴고 말했다.

"펴면 손바닥이 되니, 다섯 손가락이 가지런하지 않다." [갈등의 소굴(葛藤窟窟, 언어의 소굴)로 들어가는구나.]

다시 주먹을 쥐고 말했다.

"지금 주먹을 쥐니, 결코 높고 낮음이 없다. [이 역시 신령스런 거북이가 꼬리를 끄는 격이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개 주둥아리 닥쳐라.]

한 스님이 대중 속에서 나와, 주먹을 쥐어 세웠다. [진흙덩이나 가지고 노는 놈이다. 무슨 끝날 날이 있겠는가?]

흠산이 말했다.

"너는 단지 쥐었다 폈다(=열었다 닫았다)도 못하는 놈이다." [삼십 방을 줘야 한다.]

[拈古와 着語]

雪竇拈云 "雪竇即不然" (也隨後打入葛藤去也) 乃竪拳云 "握則為拳 有高有下" (捩轉鼻孔) 復開云 "開則成掌 無黨無偏" (爭知轉却了也) 且道 放開為人好 把定為人好 (總不好) 開也造車 握也合轍 (已在鬼窟裏作活計了也) 若謂 閉門造車 出門合轍 (也是闍黎見解) 我也知你鬼窟裏作活計" (打云 自領出去)

설두가 염(拈)해서 말했다.

"설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것) 역시 뒤따라 언어문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고는 이내 주먹을 세우고 말했다.

"쥐면 주먹이 되니, 높음도 있고 낮음도 있다." [콧구멍을 비틀어 대는구나.]

다시 펴고 말했다.

"펴면 손바닥이 되니, 편파적인 것도 없고 치우치는 것도 없다. [바뀐 것을 어찌 알겠는가!] 자, 말해보라! 펴는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인가, 쥐는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인가? [모두 좋지 않다.] 손을 펴고 수레를 만들어도 주먹은 수레 바퀴자국에 맞는다. [이미 귀신굴속에서 활발하게 계교를 부려버렸다.] (하지만) 만약 문을 닫고 수레를 만들어도 문을 나서면 수레바퀴자국에 맞는다고 한다면 [이것 역시 스님(설두)의 견해다.] 나 역시 그대들이 귀신굴속에서 활발하게 계교부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 [(선상을)치고 말했다. "(설두스님은)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관가에) 출두하시오."]

[評唱 1]

師云. 看他古人如此老婆心切. 千方百計擧揚 顯示箇一段大事 令人易見. 中間也有用作示眾 用作借事明物 也有悟去者.

저 고인이 이와 같이 노파심이 간절하였음을 보라! 천 가지 방법과 백 가지 계책으로 거양(擧揚)해서 일단대사(一段大事, 일대사인연)를 드러내 보인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보게 하였던 것이다. 그 안에는 시중(示眾, 대중에게 법문을 하는 것)으로 삼는 것도 있고, 차사명물(借事明物, 어떤 일을 빌려 이 일을 밝히는 것)로 삼아 깨닫게 하는 것도 있다.

*흠산문수(欽山文邃, 생몰 연대 미상): 당대唐代의 스님. 흠산은 주석 산명. 복주 출신. 대지환중에게 출가하여 덕산선감, 동산양개 등에게 참학하고 동산의 법을 이어받았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㉙ 이해의 길 10

無常, 긍정과 사랑 에너지

"인생, 참 무상해." 상갓집에서 종종 들을 수 있는 얘기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사람의 부고 소식을 듣는다면 누구라도 인생이 덧없다 느낄 것이다. 싯다르타를 출가로 이끈 것도 다름 아닌 허무라는 감정이었다. 태어나면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인간의 실존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못했다. 그의 출가는 곧 무상함의 실체를 찾는 여정이었다.

영원한 것이 없다는 제행무상(諸行無常)은 제법무아(諸法無我), 일체개고(一切皆苦)와 더불어 삼법인(三法印)이라고 한다. 서류를 작성할 때 그 내용이 확실하다는 의미로 도장(印)을 찍는 것처럼 세 가지 법(三法) 즉 무상, 무아, 고는 틀림없는 인생의 진리라는 뜻이다. 대승불교에서는 일체개고 대신 열반적정(涅槃寂靜)을 넣기도 한다. 혹은 네 가지를 모두 포함하여 사법인(四法印)이라 부르기도 한다.

흔히 무상과 허무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관점은 같다고 할 수 있으나, 이 둘의 지향하는 방향과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허무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삶이 무의미하다고 느끼는 감정이다. 부정의 에너지가 넘치고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사상이나 규범 등 모든 가치체계를 부정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붓다 당시에도 허무주의나 염세적인 분위기가 성행했다. 국가 간의 끊임없는 전쟁으로 인해 대중들의 삶이 황폐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붓다는 부정의 에너지를 긍정의 에너지로 전환하는 지혜가 필요했다. 붓다는 무상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았다.

무상 역시 영원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런데 허무가 삶이 무의미하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면, 무상은 그 반대로 향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은 한번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 더 의미 있게 가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붓다의 가르침이 인연생인연멸(因緣生因緣滅)이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인연이 다하면 소멸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한겨울에 내리는 눈도 수많은 인연과의 만남과 헤어짐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가을과의 인연이 다했기 때문에 겨울과 만날 수 있는 것이며, 하늘에서 내리는 눈으로 눈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겨울과의 인연이 다하면 또 다시 헤어져야 한다. 그래야 따뜻한 봄 햇살과 만나서 벚꽃 흩날리는 거리를 사랑하는 사람과 걸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운 봄날과도 헤어져야 한 여름의 뜨거운 태양과 만날 수 있으며, 가을의 단풍과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삶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이내믹한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통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무상한 삶속에서 순간순간을 있는 그대로 아름답게 가꿀 수 있다. 이처럼 무상에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하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무상은 사랑이 나오는 중요한 바탕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오래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산소에 갔는데, 그 옆에서 밭일을 하던 할머니 한 분이 혼잣말로 '죽은 다음에 찾아오면 뭘 하누. 살아계실 때 잘 해드려야지.' 그러는 것이었다. 순간 얼굴이 빨개지면서 무상의 의미를 실감할 수 있었다. 우리는 부모님의 삶 역시 무상하다는 냉엄한 현실과 그 위력을 간과하기 때문에 '다음에 잘 해드려야지.' 하면서 자꾸 내일로 미루고 있다. 그러나 내일이라는 시간은 관념 속에만 존재할 뿐이다. 무상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일이 아닌 바로 지금 여기에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무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라는 명제뿐이다."

미국의 사회학자 다니엘 벨(Daniel Bell, 1919~2011)의 말이다. 수연낙명(隨緣樂命)이라 하질 않았던가! 인연으로 다가온 자신의 운명을 즐길 수 있을 때 즐기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은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앰프 다루기 1초의 아주 간편한 견본으로!

불시에 사찰을 방문하면 대부분 스님들은 아! 우리 법당소리 아직 쓸만해요! 거절! ... 그래도 스님! 여기까지 왔으니 소리 구경이라도 ... 하며 법당에서 소리비교를 하면 장난감 수준의 차이 앞에 스님은 귀를 의심하며 아니! 이렇게 큰 차이가? 하며 난감해 하실 때 스님! 시설비는 장기할부... 아니면 초파일 지나서 하며... 가장 많은 시설을 합니다.

▣ 비싼 시설 마시고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꿔도 일천이 이천시설 소리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 사찰 음향 시설비는 일백구십만원부터 ~

▣ 앰프1, 스피커 4개, LG오디오 1개, USB, 무선마이크 종류별로 4개, 유선마이크 1개(스탠드 포함) 완벽시설까지 390만원이면 명산대찰 수억대의 시설보다 염불소리가 확실히 월등함.
※ 각종 마이크, 방송장비 및 방생용 구경!

▣ 상담 구경 조건으로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하이텍사운드전자 대표 박 공 희(명품소리훈련원 원장)

동국대학교 융합 가족세우기 상담사 2급과정 모집

가족 간의 얽힘을 풀어내고 삶의 가장 중요한 터전인 가정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족상담 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삶은 대부분 가족관계 안에서 태어나 가족의 일원으로 살다가 가족의 품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가족은 모습도 닮게 되지만 살아가는 방법과 태도, 말, 주로 쓰는 단어, 습관, 정서, 감정, 먹는 음식까지도 닮게 되고 DNA(몸의 세포)을 통해 얽힘은 유전 상속 대물림 됩니다. 삶 속에서 습득된 모든 것들은 DNA(몸의 저장장치) 세포 하나하나에 저장되어 후손들에게 유전 되고 기록 되는데, 일반적으로 가족생활을 통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족이란 고향이고 희망이고 절망이기도 합니다. 때때로 생각만 해도 행복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이란 밀착된 관계 속에서 다양하고 복잡 미묘한 일들로써 서로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처나 트라우마가 되어 얽힘을 만들고 평생 동안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융합 가족세우기 프로그램은 가족 구성원 간의 얽힘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확인하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일상적인 생각보다 더 깊은 잠재의식의 상태를 조명하고, 집단상담과 개인상담 형태로 내담자, 촉진자, 대리자들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는 불가 사이한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절에서 스님이 운영하시기 적합한 프로그램으로 추천드립니다.

수강신청

• 융합 가족세우기 2급 156시간 4학기 정원 40~50명 • 집중 워크숍별도 운영 • **가을학기 : 9월 3일 화요일** • 주간반 15~17시. 저녁반 19~21시

동국대 접수처
• 서울 [동국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홈페이지]에서 지원 할 수 있습니다.
• 찾아오는 길 : 지하철3호선 동대역 하차 6번 출구
• 서울시 중구 필동로1길 30 동국대학교 학술관 교학처
• 02)2260-3728, 3730

부산 접수처
•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19번길 14호 학마을 명상선원 / 051)754-3375
• 부산 계좌 : 농협 351-1090-3369-93 예금주 : 학 마을 명상선원
• 지하철 남천역 4번, 2번 출구 남천초등학교 앞. 남천성당 뒤 kbs후문에서 좌회전 150m

속성반 부산
• 1년 과정 월1회 3째주 토,일요일 1박 2일 집중수업
• 수강료 : 3백만원
• 부족한 시간 집중워크숍 별도운영 보충 총 170시간
• 속성반 안내 전화 : 010-8634-7851

수강생이 아니라도 누구나 상담자로 참여해 볼 수 있으며 참여 후 자기문제가 해결돼 수강생이 되기도 합니다.

강사소개 정행스님(직강)
• [내면의 고민과 행복] 저자
• 서울동국대학교 미래융합대학(가족세우기)
• 서울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 전공
• 가족세우기 촉진자 경력 10년
• 명상심리상담 경력 / 기 에너지 치료 경력 30년
• 명상심리상담 자격증 등 다수